전남도, 동남아 겨냥 호남권 통합관광 마케팅

광주시·전남도와 함께 호남권 통합관광 마케팅
필리핀 최대 여행박람회서 '전라도관' 운영 인기

전남도가 광주시, 전북도와 함께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남권 통합관광 마케팅을 펼쳤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난 6월 26일까지 3일간 열린 트래블 투어 엑스포(Travel Tour Expo 2022)에 참가해 코로나 이후 증가할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주시, 전북도와 함께 공동 마케팅에 나섰다.

3개 시·도는 5개 국 110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트래블 투어 엑스포에 전라도관을 마련, 한류(K-Wave)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을 기획해 동남아 시장을 공략했다. 전라도관에는 3천 여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전라도관 관람객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오버더톱 서비스(Over the Top·OTT)의 인기 드라마인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 목포 근대역사관, '파친코' 촬영지 순천 드라마 촬영장, 제주~전남 간 배를 이용한 여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한국의 섬티아고'라 불리는 신안 기점·소악도의 순례길과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퍼플섬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박람회 전라도관은 지난해 전남·광주·전북이 체결한 호남권 관광활성화 업무협약의 협력사업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에는 3개 시·도 공동으로 국내 주요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전남도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의 필수 여행코스로, 전남 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 시·도와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 관광상품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한 '광주-전남-전북'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주, 전북도와 함께 한류관광 코스 상품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서울 방문객의 전남 관광 확대를 위해 서울-전남 연계 스토리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

성화를 위해 시·도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박람회를 통해 필리핀이 인바운드 관광시장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동남아 관광객의 전남 유치를 위해 광주, 전북과 공동으로 현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품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무안국제공항 접근성과 여행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연장놓고 '고심'
사업 종료 1년 앞두고 성과 적어 고민

광주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종료 1년 여 기간을 앞둔 가운데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10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총사업비 235억원(국비 69억, 시비 38억, 구비 38억, 민간 100억)을 투입해 동구 광산동 8만3410여㎡를 아시아권 음식 문화와 관련된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2014년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출범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률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 동구는 이 곳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확충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로도 해당 거리가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타격 이후 상권이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조성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앞서 동구는 사업 기반을 닦은 2018년부터 거리의 핵심 콘텐츠가 될 아시아권 이색 음식점들을 순차적으로 입점시켰다.

인도와 대만, 일본, 홍콩 음식점 등 5개 점포가 그해 3월 문을 연 데 이어 7월과 12월 , 2020년 7월과 2021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5개 음식점이 들어섰다. 동구는 해당 점포들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최대 2년 간 50%(월 최대 100만원)를 지원해준데 이어 인테리어비 마련, 저금리 대출 등을 도왔다.

그러나 이중 10곳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높은 월세에 따른 따른 매출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말았다. 특히 이곳 일대의 월세의 시세는 유동인구가 많은 구시청 사거리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어 최저 330만원부터 최고 500만 원에 이른다.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거리활성화 성과가 나오지 않자 예산 확보도 더뎠다. 사업에 책정된 국·시비 145억원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64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81억원은 종료를 1년여 앞둔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동구청은 올해 편성된 예산 10억원(국비 5억원·시,구비 각 2억5000만원)을 토대로 사업 사활에 힘쓰고 있다. 행정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동구청은 올해부터 상권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민간 중심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고 운영을 보조할 방침이다.

또 상권과 연계 가능한 음악·게임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유입시켜 다음달 중으로 축제형 문화 행사를 열 계획이다.

다만 이후로도 초기 취지를 살리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올해 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착화된 현재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사업의 취지를 재검토하고 연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일각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김재환 기자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
폭염 집중호우 대비 선로변 취약개소 집중점검 시행

한국철도(코레일)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3일간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선로변 취약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 대비 레일 변형을 감지하고 온도를 저감할 수 있는 레일온도 측정장치와 자동살수장치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였다. 따라서 우기 대비 시행 중인 재해예방공사 진행상황과 낙석우려개소 실시간 영상 감시장치 작동상태 등 열차정상운행 확보를 위해 시행하였다.

더불어 11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31일간) 기관차 승무원을 대상으로 운행경험과 주의 깊은 관찰력을 통해 운행선의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즉시성 있는 포상을 시행하는 안전캠페인을 시행하여, 이상징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새로운 쉼터 실내 정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 투입 코로나에 지친 어르신 위한 복지 건강 쉼터

광주 남구청은 남구 관내 최대 공공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코로나로 지친 어르신과 주민을 위하여 사업비 10억 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벽면 녹화 및 이끼 벽 344㎡, 플랜터, 오브제 액자 설치 등 실내 정원 조성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주 공사 진행을 완료했으며 7월 7일에 보완 시설을 완료해 실내 정원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실내 정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주관'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지상 1· 2층과 지하 1층 전반에 거쳐 약 926㎡에 스킨답서스 등 실내 공기정화 식물 10,300본 식재와 비롯하여, 중앙 로비에서부터 체육관, 문화관 이동통로에 이끼 벽 및 액자를 특색 있게 연출하여 마치 자연 미술관을 연상케 하는 실내 정원을 만들어 이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남구는 지역에서 처음 시도되는 실내 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목원 관리원 등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최적화된 벽면녹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지관리에 완벽히 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실내 정원조성 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 매우 우수하게 결과가 나와 어르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실내 정원이 조성돼 코로나 등으로 지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건강타운을 찾는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주경님)은"광주시와 남구청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복지 실내 환경 시설에 관심을 두고 코로나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쾌적한 실내 녹색식물 공원 환경을 조성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공 회사와 긴밀한 연락을 하여 녹색식물의 실내 환경이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의 회원인 송건원 어르신은" 코로나19 때문에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에 올 수 없어 서운했는데 다시 개관하여 와보니 체육관시설이 새롭게 단장되었으며 실내 환경이 마치 숲속에 들어 온 것 같은 아늑함이 들고, 올해 여름은 무더위가 30도가 넘는데 실내 냉방시설이 잘되어 건강타운 실내에 들어오면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복지시설이 개속 유지 관리가 잘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